

계속 올라라, 챔피언스필드 합성

KIA, 오늘 삼성과 정규리그 홈 최종전

38승 33패 홈승률 0.535... 끝내기 4번
결승타 7번... 이범호 안방 최고 활약

4위 PS 진출엔 와일드카드 홈 경기 준PO 자격 얻으면 최소 하루 홈팬 만나

KIA 타이거즈가 6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삼성 라이온즈와 시즌 마지막 홈경기를 치른다. 2016시즌 끝을 앞두고 있지만 KIA 선수단과 팬들은 최종전 이후에도 챔피언스필드가 야구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가능성은 두 가지다. 아직까지는 경주의 수가 남아있는 4위 도전이 그 중 하나다. 기적처럼 4위로 144경기를 완주하면 KIA는 오는 10일 시작되는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안방에서 치른다. 안방 이점이 최대 두 경기까지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4위는 KIA가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다. 5위가 돼 잠실로 가서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른다고 해

도 광주에서의 '가을잔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2연승으로 분위기를 타면 5전3선승제의 준플레이오프 자격을 얻으면서 최소 하루 더 홈팬들을 만날 수 있다. 물론 쉽지 않은 꿈이기는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야구 명언이 있다. 일단 홈 최종전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둬야 한다.

KIA는 올 시즌에도 안방에서 강세를 보였다. KIA는 지난 시즌 원정에서 31승41패에 그쳤지만 홈에서 36승36패를 거뒀다. 올 시즌에도 38승33패로 0.535의 홈승률을 보이고 있다.

8번의 끝내기소로 '역전의 명수'로 통했던 지난해에 비하면 절반으로 줄었지만 올 시즌에도 홈팬들을 환하게 환극적인 끝내기승들도 있었다. 6월29일 LG전에서 이범호가 첫 끝내기 안타로 시즌 첫 6연승을 이끌었다. 김원섭도 SK에 강한 면모를 보이면서 7월13일 끝내기 안타를 날렸다. 김원섭의 안타로 임창용은 6502일 만에 타이거즈에서 승리투수가 됐다. 8월2일 한화전에서는 박찬호가 행운의 끝내기 안타를 터트리며 눈물을 쏟았다. KIA로 돌아온 '복덩이' 서동욱은 9월13일 또 다른 진정 넥센을 상대로 끝내기 3루타를 날렸다.

강해진 중심 타선이 안방 강세의 주역들이었다. 올 시즌 홈에서 가장 많은 결승타를 기록한 이는 이범호다. '캡

틴' 이범호는 7경기에서 결승타를 날리며 그라운드 안팎에서 최고의 활약을 했다. 3번 김주찬, 4번 나지완, 6번 필드 5차례 결승타를 날리며 중심 타선의 힘을 보여줬다.

올 시즌 타선을 이끈 김주찬과 이범호는 홈팬들 앞에서 기록행진도 이어갔다. 김주찬은 4월15일 넥센전에서 50.3루타, 250.2루타를 동시에 이루며 타이거즈 사상 첫 사이클링 히트의 주인공이 됐다. 김주찬은 2000루타, 1400안타, 1400경기 출장, 100홈런, 500타수도 홈에서 채웠다. 이범호도 1400안타, 2500루타, 300.2루타, 800득점, 900타점, 2700루타, 첫 30홈런을 안방에서 이뤘다.

챔피언스필드 마운드에 기록을 남긴 투수들도 있다. 윤석민이 1200이닝 투구·5000타자 상대 기록을 달성했고, 심동섭은 3년 연속 50경기 출장·1구 세이브 기록을 남겼다. 한승혁도 극적인 승리로 홈팬들 앞에서 생애 첫 세이브 인사를 했다.

헤터와 양현종도 빼놓을 수 없다. 안방에서 팀 외국인 사상 첫 무사구 완봉승을 장식한 헤터는 지난 2일 kt전서 15승과 200이닝을 동시에 넘으면서 이름을 남겼다. 바로 이어 3일 양현종도 200이닝을 넘겨받았고, 타이거즈 좌완 사상 첫 3년 연속 10승을 익숙한 고훈 마운드에서 이뤘다.

KIA가 안방 강세를 이어 마지막까지 홈팬들을 웃게 할 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토론토 엔카나시온 연장 끝내기포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엔카나시온이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로저스 센터에서 열린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아메리칸리그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연장 11회 좌월 끝내기 스리런을 날린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을야구 한경기로 끝났지만

볼티모어, 토론토에 패해 PS 탈락

김현수의 MLB는 해피엔딩

3할대 타율... 미운 오리서 백조로



김현수(28·볼티모어 오리올스)의 메이저리그 진출 첫해 포스트시즌은 한 경기로 끝났다. 하지만 긴 시간을 견딘 김현수는 당당하게 '빅리거' 훈장을 달고 시즌을 끝냈다. 볼티모어는 5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로저스 센터에서 열린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아메리칸리그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연장 11회말 끝내기 3점포를 얻어맞아 2-5로 패했다. 단판 승부였던 이 경기에서 무릎 꿇은 볼티모어는 가을 무대에서 퇴장했다.

이날 2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한 김현수는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에 이어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 경기에서 선발 출전한 두 번째 한국인 야수로 기록됐지만, 4타수 무안타에 그쳐 포스트시즌 안타 신고를 다음 기회로 미뤘다.

이날 볼티모어가 승리하면 텍사스와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를 치를 수 있었다. 한국 팬은 김현수와 추신수가 포스트시즌에서 맞대결하는 장면을 기대했다. 이 꿈도 물거품이 됐다. 그러나 김현수의 올 시즌은 해피엔딩이었다.

2015년 두산 베어스를 한국시리즈 우승으로 이끌고 FA(자유선수계약) 자격을 얻은 김현수는 미국 진출을 추진했고 볼티모어와 2년 700만 달러에 계약했다. 볼티모어는 김현수를 '데이블 세터 후보'로 꼽으며 극진히 대우하는 듯했지만 시범경기에서 타율 0.178(45타수 8안타)로 극도로 부진하자, 냉정한 태도를 보였다.

개막전을 앞두고는 댄 듀켓 단장과 벅 쇼월터 감독이 나서 "마이너리그에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등을 요구했다. 미국 언론의 압박도 있었지만 마이너리그 강등 거부권이 있는 김현수는 메이저리그에 남았다. 팬들은 그의 편이 아니었다. 4월 5일 개막전을 앞두고 열린 홈구장 식전 행사에서 볼티모어 팬들은 김현수에게 야구를 퍼부었다.

애덤 존스 등 팀 동료가 나서 김현수를 감쌌지만 팬들의 마음을 바꾸는 건 김현수의 몫이었다. 쇼월터 감독은 좀처럼 김현수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김현수는 4월 6경기 단 1타석만 소화했다. 그러나 극도로 제한된 기회에서 15타수 9안타(타율 0.600) 2볼넷을 기록하며 쇼월터 감독의 생각을 바꿔놨다.

기회는 점점 늘었다. 김현수는 5월 12경기, 6월 20경기, 7월 14경기, 8월 23경기, 9·10월 20경기에 나섰다. 짜릿한 장면도 자주 연출했다. 특히 9월 29일 토론토와 방문 경기에서는 1-2로 뒤진 9회초 대타로 등장해 역전 결승 투런포를 쏘아 올리며 팀의 포스트시즌 진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김현수는 메이저리그 첫해에 타율 0.302(305타수 92안타), 6홈런, 22타점을 기록했다. 시즌 초 경력이 잦아 95경기에만 나서 규정타석을 채우지는 못했지만 '타격 기계'의 위용을 확인했다. 이제 김현수는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빅리그에서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야구하면서 군 복무하고 싶다”

이대는 상무 입단 위해 입국

일본 프로야구 무대에서 두 시즌 동안 뛴 이대은(27)이 상무 야구단에 지원한다.

현 소속팀 지바 롯데 마린스는 8일부터 클라이맥스 시리즈(CS) 퍼스트스테이지를 치른다. 하지만 이대은은 전력에서 배제됐다.

2군 경기에서 10승 8패 평균자책점 3.86을 기록하며 마지막 1군 등록을 기다리던 이대은은 포스트시즌의 꿈을 접었다. 일본 2군 일정은 끝난 터라 4일 귀국했다. 이대은과 지바 롯데는 '결별 의사'를 확인한 상태다.

이대은은 올 시즌 종료 뒤 입대할 뜻을 굳혔다. 일단 그는 야구를 하면서 군 복무를 하는 상무 야구단에 지원하기로 했다. 오는 17일부터 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고, 31일부터 신체검사와 실기테스트를 치른다. 11월 말에 결과가 나온다. 이대은은 9월 경찰야구단에 지원했으나 신체검사와 받지 못했다. 검사일이 2군 등판일과 겹쳤다. 경찰야구단 입단이 어려운 상황이라 등판 일정을 바꾸는 등 무리한 행동도 할 수 없었다. 상무 지원 기간에는 일본 야구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 관건은 KBO리그 규정이다.

이대은은 신일고 재학 중이던 2007년 미국 프로야구 시카고 컵스와 계약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컵스 산하 마이너리그에서 뛴 그는 2015년 일본으로 활동 무대를 바꿨다. 이대은이 KBO리그에 돌아오려면 해외 구단과 계약 만료 후 2년 유예 기간을 거쳐야 한다. 규정이 바뀌지 않으면 2년 동안은 퓨처스리그도 뛴 수 없다. 상무 입단은 가능하지만, 퓨처스리그 경기에는 출전할 수 없다. /연합뉴스

통합대한체육회장에 이기흥

892표중 294표 당선... “조화로운 체육회 만들 것”

이기흥(61) 전 대한수영연맹 회장이 제40대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됐다. 이기흥 후보는 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40대 체육회장 선거에서 총투표수 892표 가운데 294표를 얻어 당선됐다. 장호성 후보가 213표로 2위에 올랐고 전병관 후보가 189표, 이에리사 후보는 171표를 획득했다. 장정수 후보는 25표에 그쳤다.

2000년 대한근대5종연맹 부회장을 맡아 체육계와 인연을 맺은 이기흥 당선인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대한카누연맹 회장을 지냈고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대한수영연맹 회장을 역임했다. 2010년 광주아시안게임과 2012년 런던 올림픽에 한국 선수단 단장을 맡았고 2013년부터 올해까지 체육회 부회장으로도 일했다. 이기흥 당선인은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체육회를 이끌게 됐다.

이번 선거는 3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 이후 첫 회장을 선출하는 행사로 체육계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이기흥 당선인은 올해 예산 총액이 4149억원에 이르며 엘리트와 생활체육을 모두 담당하는 체육회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20년 도쿄 올림픽까지 이끄는 막중한 책임을 떠안게 됐다.

이기흥 당선인은 “막중한 책임감을



5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40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기흥 전 대한수영연맹 회장이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느낀다. 생활체육이나 대한체육회 모두 통합체육회에서 하나로 녹여내야 한다”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참여하고 나도 참여하는 조화로운 체육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또 “술선수범하고 행동하는 회장이 되겠다”며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미래 100년의 대한체육회를 설계하고 만들어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선봉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김경태·안병훈 월드컵 골프 한국대표 출전

11월 호주 멜버른서 열려

11월 호주 멜버른에서 열리는 월드컵 골프대회에 김경태(30·신한금융그룹)와 안병훈(25·CJ)이 한국 대표로 출전한다.

11월 24일부터 나흘간 호주 멜버른의 킹스턴 허스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이 대회에는 28개 나라가 나오며 한 나라에서 두 명씩 조를 이뤄 출전한다.

올해로 58회째인 이 대회는 나흘간 72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펼쳐진다. 다만 1, 3라운드는 두 명이 한 조를 이뤄 포섬(두 명이 골 하나를 번갈아 치는 방식) 경기를 벌인다. 2, 4라운드에서는 포볼(두 명이 각각의 공으로 경기해 좋은 점수를

그 팀의 점수로 삼는 방식)을 진행한다.

한국에서는 김경태, 안병훈이 대표로 출전하고 홈 코스의 호주는 제이슨 데이와 애덤 스콧이 출격한다. 잉글랜드는 대니 윌릿과 리 웨스트우드, 일본은 이시카와 료, 마쓰야마 히데키로 팀을 꾸렸다. 뉴질랜드 교포 대니 리는 라이언 폭스와 함께 출전하고 미국은 리키 파울러와 지미 워커가 나온다.

총상금 800만 달러, 우승 상금 256만 달러가 걸려 있다. 2013년 대회 역시 호주에서 열렸으며 한국은 당시 최경주, 배상문이 출전해 15위에 올랐다. 한국의 이 대회 역대 최고 성적은 2002년 대회 공동 3위다. /연합뉴스

박인비 “다음주부터 실전 연습 시작”

본격 복귀 준비... “올 시즌 국내 2개 대회만 출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여자골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박인비(28·KB금융그룹)가 다음 주부터 실전 연습에 들어가 대회 출격을 준비한다.

박인비는 5일 오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부터 실전 연습을 시작한다”며 “이달 KB금융 스타챔피언십, 다음 달 챔피언스 트로피 대회에 출전하는 것으로 이번 시즌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원소 엄지순가라 부상 속에서도 지난 8월 열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낸 박인비는 올림픽이 끝난 뒤 엄지 인대 치료를 위해 김스를 했다.

박인비는 “김스는 2주 전에 풀었고 이번 주까지 재활한 뒤 다음 주부터 실전 연습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비는 재활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 동안 지진 때문에 걱정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박인비는 “시택이 경주에 있는데 지난번 지진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지금은 남편이 경주에 가서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한 취미가 없어 반려견을 돌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도 했다.

박인비는 “얼마 전에도 강아지를 데리고 반려견 전용 수영장에 갔다”며 “강아지의 눈만 보고 있어도 행복하다”고 웃음을 지었다.

부상 회복이 예상보다 빨랐다는 박인



비는 “인대가 재생됐고 통증도 사라졌다. 하지만 실전 연습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며 “부상 예방 차원의 치료도 받았고 그 때문에 이번 시즌은 2개 정도만 치르겠다”고 계획을 설명했다.

박인비가 출전하는 2개 대회는 10월 20일 개막하는 KB금융 스타챔피언십과 11월 25일 개막하는 ING생명 챔피언스 트로피 박인비 인비테이셔널이다. 10월 13일 인천에서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하나은행 챔피언십에는 출전하지 않는다. /연합뉴스